

ISSN 1599-7863

박물관사람들

2018년 겨울 · 64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박물관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파주 용미리 마애불

2018년 겨울 ■ 64호 Contents

기획/고려	우리 곁의 고려 그때도 그랬었구나 고려와 바다와 사람들	4 8 12
문화칼럼	고대 인도, 다양한 사람들이 뒤섞이다	16
박물관 탐방	천년의 이름, 서라벌-국립경주박물관	20
답사기	가장 깊은 터전, 재사	24
회원마당	흙으로 그린 그림	28
박물관회 소식	박물관 특설강좌, 연구강좌 안내	31
숨은 전시	未忘	33
국립중앙박물관회는		34

발행일 2018년 12월 5일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전화 (02)2077-9790~3
발행·기획 신병찬 편집회원 강현자·계윤애·길문숙·문정원·서유미·정은정 진행 서승연 디자인 문화공감 (02)2266-1897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fnmk.org

회지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정의 고려

올해는 고려가 건국한 지 1100년이 되는 해이다. 1000년이었던 1918년은 엄혹한 일제 치하였으니 기념은커녕 문화제 탈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1907년 일본 궁내 대신 다나카 미츠아키田中光顯가 해체하여 일본으로 가져갔던 ‘경천사지 십층석탑’이 국제적 비판여론을 의식한 조선총독부의 압박으로 돌아온 해가 바로 1918년이였다. 그런저런 까닭으로 각 지역의 국립박물관에서 올해 내내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열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12월 4일 개막하여 2019년 3월 3일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전시를 연다.

우리에게 고려는 조선만큼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조선보다 오래된 시대인 탓도 있겠지만, 지식이나 애정(?)도 좀 덜한 듯하다. ‘태정태세문단세……’ 식으로 왕계를 외운 일도 없고 ‘청자’, ‘불화’, ‘나전칠기’ 같은 영롱한 문화재도 하나로 꿰어지기보다는 각각 따로 노는 느낌이다. 왜 그럴까? 곰곰 생각해 보니 918년부터 1392년까지 내내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이 너무나 멀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물리적으로는 서울에서 70킬로미터밖에 안 되지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갈 수 없는 ‘북한’ 땅에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남북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임진강가에는 고려의 자취가 조금은 남아 있었다. 첫째는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왕건에게 나라를 바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의 무덤이다.



경순왕릉 전경

경순왕 김부金傳는 신라 제46대 문성왕의 6대손으로 927년 즉위했다. 전임이었던 경애왕이 포석정에서 견훤의 습격으로 죽은 뒤의 일이었다. 이는 신덕왕, 경명왕, 경애왕으로 이어지던 박씨 왕계를 김씨로 바꾸어 신라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려 한 견훤의 뜻에 따른 즉위였다. 견훤이 아들 신검의 반란으로 금산사에 유배되었다 탈출하여 왕건에게 몸을 의탁한 935년 경순왕은 고려의 왕건에게 항복하기로 결심한다. 아들 마의태자 등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라왕실의 보물인 진평왕의 옥대와 함께 나라를 왕건에게 바친다. 왕건은 경순왕을 태자보다 높은 정승공政承公에 봉하고 만딸 낙랑공주와 결혼시켰으며 경주를 식읍으로 주었다.

그로부터 43년 후인 경종 3년(978) 경순왕이 세상을 떠났다. 전례에 따라 경주로 장지가 결정되었지만, “왕의 시신은 개경에서 백 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반대에 부딪쳐 결국 임진강을 건너지 못하고 고랑포 북쪽 야트막한 언덕에 묻힌다. 개경에서 3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다. 경순왕의 죽음이 신라 백성들을 자극해 부흥운동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고려 조정의 염려 때문이었다. 왕위에 오르는 순간부터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경순왕의 처지가 서글퍼진다. 이후 경순왕릉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기록을 찾기 어려울 만큼 잊혀진다. 그러다 769년이 지난 1747년(영조 23) 감사 김성운 등이 “시호 경순왕을 왕의 예우로 장단 옛 고을의 남쪽 8리에 장사 지낸다.”(諡敬順以王禮葬于長湍古府南八里)는 명문이 새겨진 비석을 발견하여 이 묘가 경순왕릉임을 알게 되었다.

현재 능 앞에 있는 ‘신라 경순왕의 능’(新羅敬順王之陵)이라는 비는 이때 세웠음을 밝히고 있는데 한국전쟁 시기의 것으로 보이는 총탄 자국들이 선명하다. 혼유석, 장명등, 망주석, 석양 같은 석조물도 조선시대 사대부 무덤의 양식 그대로다. 다만 신라 왕릉에는 없는 곡장이 봉분을 감싸고 있으며, 봉분 둘레에는 호석을 둘렀다. 아래쪽 비각에는 경순왕의 신도비로 여겨지는 비석이 있지만, 오래 방치된 탓에 글자를 알아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경순왕릉의 수난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1950년 한



경순왕릉 비



경순왕릉 신도비



송의전 전경

국전쟁이 일어나자 이곳은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으며, 휴전 이후로도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에 위치하게 되면서 왕릉의 존재는 다시 잊혀졌다. 그러던 중 1973년 이 지역을 관할하던 중대장이 '신라경순왕지릉(新羅敬順王之陵)' 비석을 발견하여 1975년에 사적 제244호로 지정되었다. 능상 아래에 있는 비각은 1987년에 지었는데 그 안에 경순왕 신도비로 추정되는 비석이 있다. 이 비석은 원래 고랑포구 주변에 방치되어 마을 주민들이 빨래판과 징검다리 이용하던 것을 1976년에 고랑포 초등학교로 옮겨 놓았던 것이다. 왕릉에서 돌아오는 길 옆 철조망에는 아직도 '지뢰 주의'라는 위험 표지판이 붙어 있다.

여러모로 쓸쓸한 경순왕릉을 떠나 차로 20여 분 거리에 송의전이 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1397년 고려왕실의 후손 왕우에게 이 지역의 봉토를 주면서 고려 태조의 원찰이었던 양암사에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게 했다. 새 왕조를 열면 전 왕조의 위패와 왕릉을 보존하는 것이 전통적인 예의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성계가 고려의 왕족인 왕씨들을 많이 죽이고, 고려의 충신들을 죽인 일로 괴로워하다가 왕건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했다는 말도 있다. 어쨌든 아직은 고려에 익숙한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도였던 개경에 종묘를 세우면 고려를 부활시키려 하는 세력에게 힘을 실어줄까 염려하여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연천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종 때인 1399년에는 송의전 건물을 짓고 고려 태조와 8왕(혜종, 현종, 원종, 충렬왕, 성종, 경종, 문종, 공민왕)의 제사를 받들게 했다. 그러다 세종 때인 1425년 제후의 예법은 5묘인데, 고려의 8위는 부당하다면서 태조, 현종, 문종, 원종의 4위만 받들게 했다. 네 왕을 빼고 나머지 네 왕을 남긴 데에도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태조야 당연한 경우겠지만, 현종은 세 차례에 걸친 거란

의 침입을 물리치고 난 뒤 세력이 커졌던 무신들을 억누르고, 문치의 전통을 세운 왕이다. 현종의 아들인 문종은 '고려의 황금기'라 불리는 시대를 이끌었던 왕이며, 원종은 무신정권을 물리친 왕이었다. 이때 빠진 왕 가운데 공민왕은 조선의 종묘에 '공민왕 신당'을 지어 옮겼다. 고려말 강력한 개혁정책을 펼쳤을 뿐 아니라, 이성계를 발탁하여 중앙으로 진출하게 해준 왕이 바로 공민왕이었기 때문이다.

1451년에는 문종이 공주에 숨어 살던 고려 현종의 후손을 찾아내 순례란 이름을 지어주고 3품의 관직과 토지, 노비를 주며 제사를 받들게 했다. 또한 정몽주를 비롯한 열여섯 명의 충신에게도 함께 제사를 지내게 했다. 지금도 송의전 근처에 왕순례의 무덤이 남아 있으며, 왕건의 31세손이라는 왕무임 할머니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다. 이렇게 시작된 송의전의 제사는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졌으나 한국전쟁으로 모든 건물이 불타 버리면서 맥이 끊겼다. 1973년이 되어서야 왕씨 후손들이 정전을 복구했고, 개성왕씨종친회 주관으로 봄과 가을에 제사를 이어오고 있다.

송의전에는 네 왕의 위패를 모신 정전과 위패를 잠시 옮겨야 할 일이 있을 때 쓰는 이안청, 각종 제기를 보관하는 전사청, 제사 때 사용하는 향, 축, 폐 등을 보관하고 제관들이 제례를 준비하는 양암재 등의 건물이 임진강을 내려다보며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다. 오른쪽 끝에는 복지검, 신승검, 서희, 강감찬, 윤관, 김부식, 정몽주 등 16공신의 위패를 모신 배신청이 있다.

오백여 년을 이어온 왕조의 종묘라 하기엔 너무 초라하고 격식도 많이 빠진 듯한 송의전. 승리자의 여유라기보다는 '옛다' 하고 던져준 것 같은 씁쓸함에 터덜터덜 계단을 내려오니, 오백 년이 넘었다는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임진강을 내려다보며 굳건히 서 있었다.

김문숙 회원



송의전 배신청



송의전 내부

그때도 그랬어구나



용·나무·전각무늬 거울,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시대라 하면 자동적으로 고려 청자만 떠올릴 뿐 그것을 만든 고려시대 사람들에 관해서는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고려시대 사람들의 생활상도 조선시대와 같았을 거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큰 오해였습니다. 고려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은 제가 생각했던 전통적인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남녀 차별이 없었다는 사실이 의외였습니다. 21세기인 지금도 남녀가 평등하지 못하다고 불만이 많은데 하물며 천 년 전의 고려 사회에서 남녀가 동등했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려는 그때 이

미 수도 개경의 벽란도에 송, 거란, 일본은 물론 멀리 아라비아 상인까지 드나들 만큼 국제적이었으며, 국적과 종족을 가리지 않고 능력만 있으면 관리로 등용하는 개방적인 사회였습니다. 남녀상열지사(남녀상열지사)로 알려진 고려 가요에는 거침없이 자신을 감정을 표현하는 여성상이 그려져 있는가 하면, 개경의 큰 냇가에서는 남녀가 한데 어울려 목욕을 했다고도 합니다. 제 상식이 편협해서 그런지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이처럼 세계를 향해 문을 열어 놓았고,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한 의식을 지녔던 고려 사람들의 삶이 꽤 궁금합니다.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름 우희 댕닙 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려주글만뎡
어름 우희 댕닙 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려주글만뎡
정(정) 둔 오늘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얼어 죽더라도 사랑하다 죽겠다며 사랑하는 입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솔직하게 노래하는 고려시대 여인의 당당함이 낯설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옛 여인’과 전혀 다릅니다. 신선한 충격입니다. 상식을 넘어서 고려시대 여성들의 삶을 들여다볼까요? 집 안에서 살림만 할 거라고 생각했던 고려시대의 여자들은 마음대로 바깥출입을 할 정도로 일상 생활이 자유로웠습니다. 친족 및 가족, 혼인, 재산 상속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고려에서는 남녀가 혼인을 하면 사위가 일정 기간 동안 처가살이를 하는 서류부가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처가집이 부자면 처가살이 기간도 더 길었습니다. 혼인을 하고도 자신이 살던 집에서 자기 가족들과 사는데 기죽을 여자는 아무도 없겠죠? 당연히 고려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 겁니다.

서궁이 『고려도경』에 “고려인들은 쉽게 혼인하고 쉽게 헤어져 그 예법을 알지 못하니 가소로울 뿐이다.”라고 적은 것처럼 고려시대에는 자유 연애는 물론 이혼과 재혼도 자유로웠습니다. 혼인했던 여자도 왕의 비가 될 수 있었던 걸로 보면 요즘보다 더 편견이 없었나 봅니다. 충숙왕의 수비 권씨, 충렬왕의 숙창원비, 충선왕의 순비는 재혼한 경우입니다. 남편 생전에 시집살이를 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죽으면 대부분 친정으로 돌아와 살았습니다. 이때 혼인할 때 가지고 갔던 재산을 도로 가지고 올 수 있었지요. 또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아 본인의 재산을 소유했기에 재산이 많은 여자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당시 남자들은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 혼인하기도 했는데, 부를 얻기 위해 재산이 많은 여자를 첩으로 얻거나 아내를 버리고 다시 혼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어째 좀 낯익은 모

습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속물적인 근성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호주제가 폐지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미 고려시대에는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호적에 자녀의 출생을 기록할 때도 출생 순서대로 기록하여 남녀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상속도 아들딸 구분 없이 똑같이 나누었고, 제사도 아들딸 구분 없이 번갈아가며 지냈습니다. 안동의 유학자 하자징의 네 남매가 부모님의 유산을 나누는 내용을 담은 문서가 있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노비의 나이와 건강에 따라, 논밭의 기름진 정도에 따라 고르게 네 몫으로 나누는 다음, 산가지에 표시를 해두고 제비 뽑기를 했답니다. 우리 사회가 여태껏 전통으로 알고 있던 조선시대의 관습이 하나둘 깨지면서 혼란스러운데 더 이전에 또 다른 전통이 있었음을 알고 고려시대에서 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금동관음보살좌상, 국립중앙박물관



청동 은입사 물가 풍경 무늬 정병, 국립중앙박물관



장성 원덕리 미륵석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직업으로 공무원을 뽑지요. 그럼 고려시대 사람들이 선망하던 최고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현재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관료였지요. 고려와 같은 신분 사회에서 관료는 부와 권력, 명예까지 누릴 수 있었으니까요.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합격해야 했지만 귀족 자제들은 음서에 의해 과거를 보지 않고도 관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천민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양민은 사실 과거를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온종일 농사일에 매달려야 하는 농민이 공부를 한다는 게 어렵기도 했지만, 자랑할 만한 조상이나 부모가 없어 시험을 본다 해도 합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응시 원서에 본관, 4대 조상의 관직을 적도록 해 출신 내력을 보았으니 성적이 우수해도 불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대목에서 뭐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지금 우리도 블라인드 채용이니 현대판 음서니 하며 시끄럽지 않습니까? 불평등한 신분제였던 고려 사회와 뭐가 다른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 고려시대에도 적체 현상으로 합격자 모두를 바로 임명할 수 없어 동정직을 주어 관료 대우를 했습니다. 요즘 교사 자격증은 얻었지만 발령이 나지 않아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예비 교사와 같은 경우죠. 현재의 예비 교사는 3년을 기다렸어도 발령이 나기 전에는 급여도 없고, 발령이 나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동정직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아도 약간의 녹봉을 받고 진급도 하다가 발령을 받으면 경력을 인정받아 진급된 직급으로 임명되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시험 성적이 아주 뛰어나면 바로 왕의 측근인 내시로 발탁했지만 대부분은 지방의 수령을 보좌하는 속관으로 발령하였습니다. 지방 세력을 견제하고자 젊고 패기 있는 관료들을 먼저 지방에 파견하여 지방의 실정을 파악하고 실무를 익히게 했던 거지요.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였으며 해가 길 때

는 오전 7시에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서머타임제를 실시한 격이네요. 12월에 인사 발령이 있었으며 대체로 한 직책에서 30개월 이상 근무하면 승진이나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매달 1일, 8일, 15일, 23일은 정기 휴일이었고 설날, 입춘, 한식, 입하, 칠석, 입추, 추석과 연등회와 팔관회가 열리는 날에는 특별 휴가도 있었습니다. 요즘의 우리네 직장 생활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이처럼 개방적이고도 합리적인 사고를 지녔던 고려시대 사람들은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각각 특색 있는 문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즉 중앙의 왕실과 귀족들은 고급스럽고 세련된 귀족 문화를, 지방의 호족을 중심으로 한 일반 백성은 지방색이 강한 개성적인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불교의 대중화로 인해 지방에서는 조형미가 떨어지는 거대한 불상이 조성되었는데 논산 관촉사의 석조보살입상과 안동 제비원 석불, 파주 용미리 석불이 대표적입니다. 왜 이렇게 크기만 크고 멋없는 불상을 만들었을까요? 지방 호족들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미적 아름다움보다는 불상의 크기에만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얼굴과 몸의 비례가 맞지 않아 어색하거나 몸통 부분은 간략하게 조각하고 얼굴을 따로 얹어 놓기도 하는 등 대충 만든 것처럼 영 숨씨가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는 마을 어귀에 비석이나 장승 모습의 불상도 많이 세웠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조각가가 아닌 일반 백성들이 만들어 대부분 조형미는 떨어지지만 지방민의 자유분방한 미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로부터 라마 불교의 불상이 전래되면서 우아하고 화려한 장식의 귀족적 미의식이 반영된 불상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막강한 부를 기반으로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던 귀족들은 고려를 대표하는 고려 청자, 나전칠기, 불화 등 우수한 예술품을 낳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고려 청자는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취향을 충족시키며 음

식을 담은 그릇은 물론 향로, 정병 등 불교 도구까지 생활 전반에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베개와 요강, 지붕을 덮는 기와까지도 청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왕실과 귀족들은 복을 빌며 큰돈을 들여 전문적인 화가나 승려들에게 불화를 그리게 하거나 불경을 베껴 쓰게 했는데, 금가루를 사용해 그린 번상도는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 줍니다. 아울러 타출 기법이나 입사 기법으로 만든 금속 공예품도 고급스러운 세련미를 유감없이 보여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감탄하며 고려시대의 유물을 감상할 수 있는 건 고려 귀족들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취향 덕분이러니 다소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천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적 거리감으로 고려시대 사람들의 이미지는 화석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역사로 격리시켜 두고 고려시대 사람들의 숨결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까마득히 먼 역사 저편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았습니다. 출근길 직장인의 모습 너머로 고려시대의 관료가, 팔짱을 낀 연인의 모습에서는 연등 불빛 아래의 고려시대 연인이, 아내 눈치를 살피는 남편들의 모습에서도 고려시대 남편들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이제는 곳곳에서 천 년 전 고려시대 사람들의 숨결을 우리 곁에 살아 있는 이웃처럼 느낄 수 있겠습니다. 🐼

계운애 회원

청자 사자 장식 뚜껑 향로,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와 바다와 사람들

드라마 하나. 별에서 온 그대

광해군 1년에 KMT184.05 행성에서 지구에 탐사 차 왔다가 모종의 사고로 낙오된 한 외계인은 그가 남겨진 조선이라는 나라에 적응하며 400년간 신분을 바꿔가며 살아왔다. 2013년에는 도민준이라는 이름의 대학 강사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다.

드라마 둘. 쓸쓸하고 찬라하神-도깨비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죽었다가 신의 섭리로 무한한 수명과 능력을 가진 도깨비로 다시 살아난 고려의 무신 김신은 고려를 떠나 약 9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다가 2016년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조만간 프랑스 니스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었다.

이 둘에게는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도민준은 신분을 바꿀 때마다 징집되어 횡수로 총 24회, 도합 49년 7개월이나 복무하는 성가신 일을 겪으면서도 이 땅에 살았다. 반면 김신은 배를 타고 고려를 떠났고 이후 국적은 한반도에 둔 것으로 추정되나 정착해서 살지는 않았다. 그렇게 된 데는 물론 각자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조선'의 외계인과 '고려'의 도깨비 간의 차이 아닐까 하는 싱거운 생각을 잠시 해 보았다.

고려의 바다는 열려 있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열려 있었다. 난파당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닷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었다. 하지만 육로보다 빠른 속도로 대량의 상품을 나를 수 있다는 장점을 무시할 수 없는 상인들은 바닷길을 이용했다. 이렇게 배가 다니니 외교관이나 유학생 같은 사람들도 드나들다가 그대로 눌러앉기도 했다. 관광의 개념이 없었다는 것만 제외하면 현재 우리가 사는 모습과 비슷하다.

후삼국 시대부터 고려 초까지 중국 대륙은 중원의 오대五代와 강남의 십국十國의 각축장이었고 거기에 북쪽의 강국 요나라 즉 거란이 있었다. 후삼국의 각 나라들과 호족들은 대륙의 각 나라들과 복잡하게 얽히며 교역하였다. 이 당시 서해 항로는 매우 북적거렸을 것이 분명하다. 한편 동해 쪽으로는 여진족이 교역하기 위해 내려왔다.

그러나 고려가 한반도를 통일하고 발해는 멸망한 뒤 중원에 오대십국을 정리한 송나라가 자리잡자 상황이 달라졌다. 고려는 이미 강국인 거란의 책봉을 받고 그들의 연호를 쓰면서도 사실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앞선 송나라와 교류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우여곡절 끝에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협상가이자 외교관으로 꼽히는 서희가 송나라와 수교하기 위해 바다 건너 개봉에 다녀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려의 상인들도 송나라를 마음껏 드나들며 장사할 수 있게 되었을까?

아쉽게도 고려 조정은 바다를 반쯤 닫아버렸다. 재상 최승로는 공식 사신을 따라가서 이루어지는 공무역을 제외한 사무역을 금지하도록 건의했고 성종은 이를 받아들였다. 전 왕조의 장보고나 해상무역으로 성장해 고려를 창업한 왕건의 예를 생각하면 왕권을 위협하는 더 이상의 해상세력을 키우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또 성종은 유학에 기반을 둔 농업국가를 지향하는 군주였다.

고려의 상인들은 대륙에 가서 무역할 수 없게 되었다. 대신 송나라 상인들의 고려 입국은 허가했다. 이전에는 여러 항구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던 교역이 개경에서 가까운 예성항 즉 벽란도로 집중됐다. 가끔 아라비아 상인들도 송나라 상인들을 따라 이곳에 왔다. 고려 상인들뿐만 아니라 동여진, 서여진, 흑수말갈, 일본 등 송나라에 가기 힘든 지역 상인들도 송나라 상인들과 거래하려고 벽란도로 모여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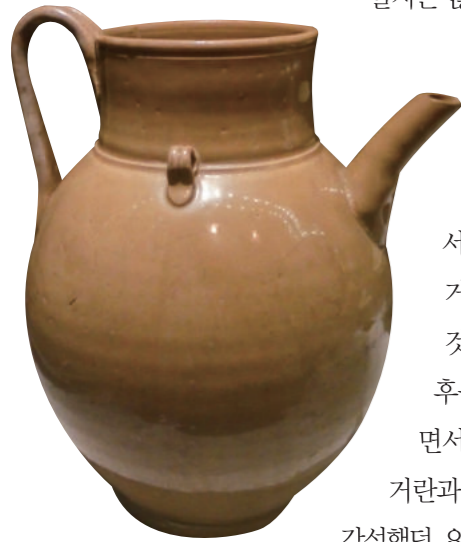


「황비창천」이 새겨진 거울, 국립중앙박물관

팔관회가 열릴 때면 왕은 백성들 앞에서 각지에서 온 외국 상인들로부터 공물을 받는 장면을 연출했다. 번국蕃國을 거느리는 해동 천자의 모습이였다. 이러한 광경이 되풀이되다 보면 외국인에 대한 낯선 감정이 갈수록 흐려지지 않았을까? 거기에 그나마 바다가 아주 막힌 것은 아니어서 직접 가서 무역을 못 할 뿐 송나라 상인들의 배를 타고 대륙에 드나들 수 있었으니 외국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도 아주 멀지는 않았을 것 같다.



국화 넝쿨무늬 항아리, 북송, 국립중앙박물관



참외 모양 주전자, 오대, 국립중앙박물관

그러나 송과 교류할 때 신경이 쓰이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요와 금이었다. 일단 힘의 우위는 이들에게 있었다. 송나라는 서쪽으로는 서하, 북쪽으로는 요, 금 그리고 나중에는 몽골제국에게까지 시달렸다. 그래서 고려는 이들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야만 했던 일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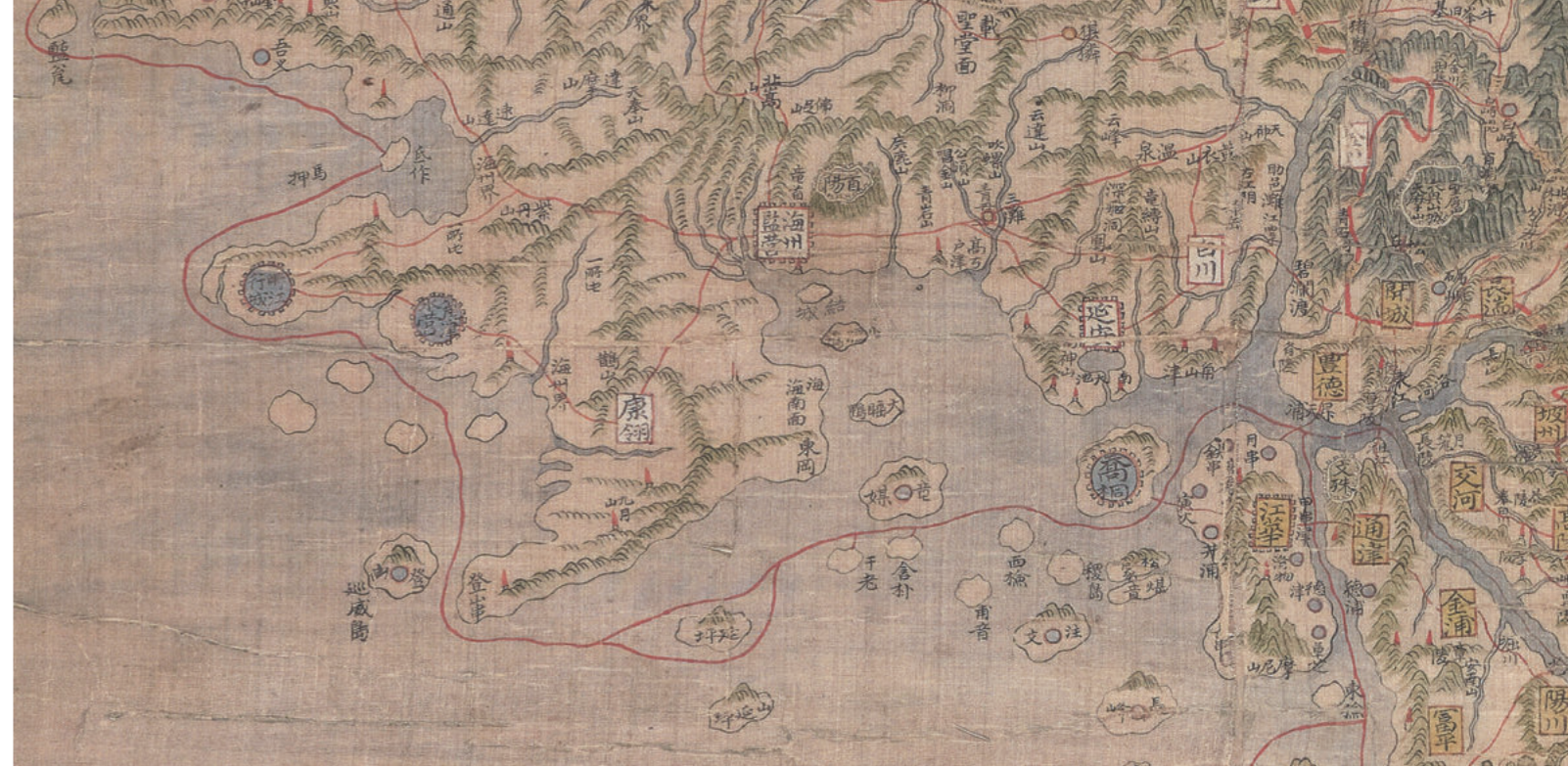
거란이 처음 침공했을 때 서희는 거란의 의도를 제대로 간파했다. 80만 대군은 과장된 것이며 그들의 목표는 고려가 아니라 송나라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영토가 아니라 배후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는 소손녕과의 유명한 담판에서 거란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오히려 강동 6주를 고려에 편입시키는 성과를 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어질 거란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포석이 되었다.

강성했던 요와 금이 몽골 앞에서 무너질 때 고려도 예외가 아니었다. 후에 원종이 되는 고려의 태자는 고려의 운명이 걸린 결정을 해야 했다. 화친하러 가는 도중 몽케 칸이 사망하자 칸의 자리를 두고 다투는 왕자들 중 쿠빌라이를 선택한 것이다. 최후의 승자인 쿠빌라이가 고려에 매우 고마워하며 고려의 풍속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불개토풍不改土風을 약속한 덕에 고려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들의 선택 뒤에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물건과 사람이 오갈 때 지식과 정보도 함께 왕래한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려 했던 고려인들의 모습 또한 엿보인다. 바다와 땅이 열려 있었던 덕에 외부에 대한 인식의 지평도 넓었던 것이 아닐까? 조선과 비교하여 탁월했다고 평가받는 고려의 외교력은 이 지평 위에서 있었다는 생각을 해본다.



연꽃 넝쿨무늬 대접, 금,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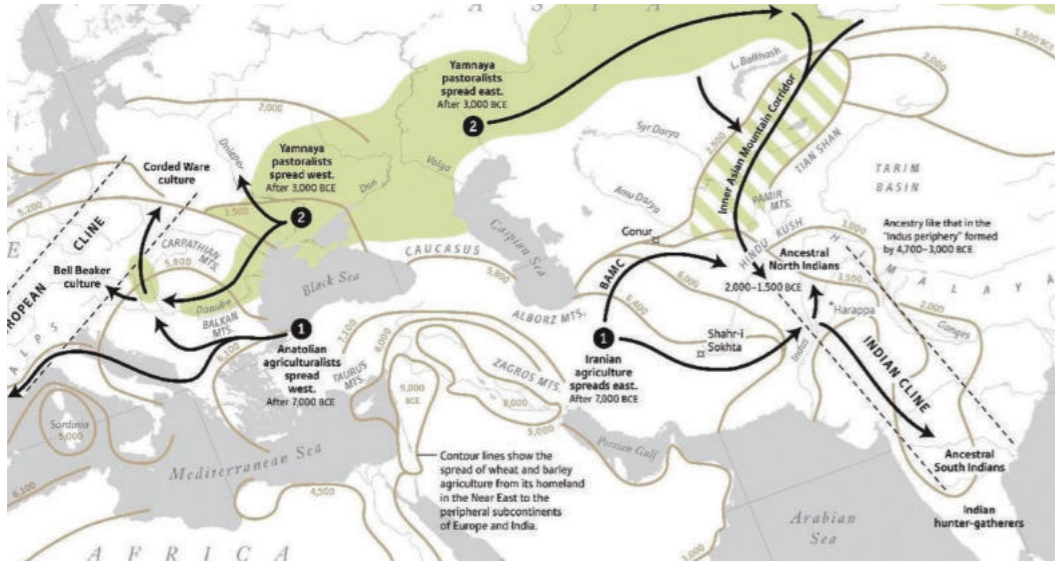


정상기, <동국대지도>중 개성 부근, 국립중앙박물관

이후론 원의 부마국으로서 원의 경제권에 편입되어 역참을 이용한 안전한 왕래가 가능했다. 바닷길 또한 활짝 열렸다. 사무역도 가능해져서 원나라 공주 출신 왕비부터 시작하여 부원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교역에 나섰다. 고려가요 쌍화점에서 만두가게에 갔더니 회회아비(위구르인)가 있더라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다. 외국인이 쉽게 드나들던 때, 역사는 되풀이된다더니 암울한 시기에 세계를 향한 문이 열린 이 씩씩한 상황에 왠지 일제강점기가 생각난다.

기세 등등하던 원나라도 얼마 못 가 북쪽으로 쫓겨나고 명나라가 들어섰다. 얼마 후 조선이 개국했다. 많은 나라를 상대했던 고려와 달리 조선이 상대할 대륙의 유일한 나라인 명나라는 바다를 완전히 닫아버렸다. 공식 사신단마저도 고단한 육로로 북경에 가야 했다. 조선인들의 타국에 대한 인식이 점차 희미해지면서 나라 밖으로 나가야 할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게 되었으리라. 혹시 그들과 어울려 살던 외계인 도민준씨도 그랬던 것이 아닐까? 항공편도 없는 시대에 삼면이 바다인 땅에서 바다가 닫히거나 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럼 바다와 하늘이 활짝 열려 있지만 몇 십 년간 대륙의 일부이면서도 단절되어 섬이 되어 있었던 우리의 인식의 지평은 지금 어떠한가?

서유미 회원



고대 유라시아 농·목축 인구 이동 지도

고대 인도, 다양한 사람들이 뒤섞이다

지난 7월 연구강좌에서 인도고고학에 대해 강의했을 때 고대 인도의 아리안Aryan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시더군요. '아리안'이란 신성한 언어로 여겨진 산스크리트어로 신들께 찬양 드리는 자신들을 스스로 높인 '고귀한'이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문화를 숭상하는 우리 스스로와 오랑캐를 구분했던 고대 동아시아 전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786년 윌리엄 존스 경은 리그-베다Rig-veda에 쓰인 산스크리트어가 고대 페르시아어를 비롯해 멀리 유럽 고대어와도 가족적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자 많은

서구의 연구자들은 구약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이 증명되었다고 흥분했습니다. 바벨탑이 있었던 고대 바빌론에서 흩어진 일파들이 서쪽으로는 유럽, 동쪽으로는 이란을 거쳐 인도까지 갔다고 이해했던 것이지요.

19세기 말부터 독일의 어용학자들은 북유럽의 추운 환경을 극복하고 강대해졌으며, 자연의 위대한 신비를 이해한 백인들의 세계 정복 과정과 인도·유럽어의 확산을 연결했습니다. 북유럽과 베다의 신화에는 벼락, 불과 바람 등을 무기로 한 위대한 자연신의 호위 아래 전투성을 고무하

는 제사장과 전사 집단이 등장하는 유사성이 있긴 합니다. 그들은 서유럽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란·인도까지 정복을 통해 문명을 전파한 고대 노르만·게르만 정복자 혈통에 대해 리그-베다에 등장하는 '아리안'을 빌어 아리안족 The Aryan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린네의 생물분류학 및 다윈의 진화론 이후 발전한 인종과학Race Science과 결합한 이 프레임이 2차 세계대전 중에 가져온 파국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인도학 연구자들은 리그-베다를 중시했던 사람들이 기마 전차 유목적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인도·유럽어족의 기원을 기마와 유목 전통이 활발했던 중앙아시아로 상정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아리안주의에 나타난 전사 집단에 의한 정복 혹은 개척 활동 프레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단절된 종교 전통 및 우월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이민자들이 정복 개척한 신대륙과 호주를 연상시키는 프레임이 인도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인도학에 유독 깊은 관심을 보였던 독일과 영국 연구자들의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세계 제국 건설을 꿈꾸었던 그들의 욕망이 투영된 가설에 불과했습니다.

식민 경험을 겪은 곳에서는 식민사학에 대한 학계 및 시민 사회의 반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독립 이후 인도에서 있었던 여러 반작용 중에 국수적 힌두 민족주의Hindutva를 강조하는 이들은, 인도·유럽어족 및 세계문명의 인도기원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까지도 정치, 언론권력 및 학문권력의 막강한 후원을 받고 있는 이 '힌두뜨와' 지지 연구자들의 인도기원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논거는 베다 문헌에 담긴 산스크리트어가 매우 완성된 언어 체계이며, 그러한 체계가 마련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산스크리트어의 편년이 베다의 편년보다 올라간다는 것은



인더스 문명 무덤 발굴 장면

동의를 줍니다. 그런데 힌두뜨와 연구자들은 산스크리트어가 아닌 베다 문화의 편년을 주류 학계가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인더스 문명 이후인 기원전 1500년경보다 끌어올려 역사교과서 등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우선 산스크리트어와 베다를 교묘히 일치시킨 트릭을 감추고 있습니다. 베다 문명=인더스 문명론은 베다에 묘사된 금속·기마 문화가 고고학적으로 인더스 문명 이후이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베다보다 이른 산스크리트어와 관련해서도 비교언어학 원리에 따르면 인도 서북부에 도착하여 발전한 언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북인도어와 남인도어는 영어와 중국어처럼 전혀 다른 어족입니다. 또한 북인도에서 저 멀리 아일랜드까지 인도·유럽어가 확산되는 동안 바로 이웃한 남인도에는 왜 확산되지 못했는가라는 상식적 의문에 부딪히기 때문에 (북)인도기원론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 학계에서 인도·유럽어의 전파와 관련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설명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농경·언어 확산 가설인데, 이는 신석기시대 농경의 확산과 언어의 확산을 연계해 설명하는 논의입니다. 다른 설명은 스텝지역 가설로, 청동기시대 이후 흑



흔 구멍이 있는 탁자식 고인돌



선사시대 암각화, 인도 중부

해·키스피해 지역에서 기마와 마차를 이용해 장거리 대규모 유목을 하던 사람들의 이주와 함께 인도·유럽어가 확산되었다는 가설입니다.

고고학, 고인류학 및 DNA 과학 등에 기반한 최근의 연구는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로 이주했던 초기 인류가 세계 곳곳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각 지역 인구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들 초기 인류가 남긴 흔적은 인도에서도 그간의 고고학 연구로 충분히 밝혀졌는데 그중 특히 시선을 끄는 것이 주로 바위 은신처에 그려지거나 새겨진 암각화 유적입니다. 빙하기에도 상대적으로 온화했던 인도의 환경 속에서 풍족하게 살았던 이들 사냥·채집민들이 인도 인구의 근간을 이루었다는 것이 최근 DNA 과학을 통해 뒷받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석기 시대 농·목축의 확산과 후기청동기에서 초기철기시대까지 있었던 스텝지역 유목민의 확산은 인도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최근 유명 과학논문집에 실린 고DNA 분석 연구에 의하면 신석기시대부터 초기철기시대 내내 유목적 농·목축인들이 인도 서북부 대평원지역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그간의 고고학 연구를 통해 밀 농경이 이란 동부에서 인도 서북부 지역으로 유입(기원전 7000년 이후)되었다는 것은 선명해졌습니다. 이후 농·목축 정착사회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결국 도시를 기반으로 한 인더스 문명(기원전 2600-1900년)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인더스 문명 이후(기원전 1900년 이후) 주로 중앙아시아의 옥서스 강 지역에서 유목민과 기마가 유입되었습니다. 리그-베다에 묘사된 기마·목축인들은 인더스 문명 이후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사용했던 산스크리트어는 리그-베다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이는 인더스 문명 지역과 그 이웃한 지역들에서 이미 산스크리트어의 기원이 되는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많은 고대종교연구가들은 후기 청동기에서 초기철기시대 옥서스 강 지역에 인도·유럽어를 사용하면서 조로아스터교와 베다교의 공통 조상이 되는 종교전통과 기마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이동한 이들은 이란에서는 조로아스터교 문화를, 인도 서북부에서는 베다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와 베다교는 선교사들에 의해 전도된 것이 아니라 두 지역에서 기존 전통을 바탕으로 새롭게 발전한 종교전통입니다.

인도에서 ‘아리안 논쟁’은 영국 식민사학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인더스 문명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주한 일부 엘리트들에 의해 건설되었고, 그 지역민들은 오늘날 남인도어를 쓰는 원주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가 후기청동기 혹은 초기철기시대에 중앙아시아에서 파죽지세로 침략한 산스크리트어 베다 사람들이 이 문명을 파괴하고 북인도를 식민화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정체되었던 인도 원주민 사회에 외부에서 우월한 집단이 들어와 역동성을 주었다는 전형적 식민사관 논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도인들은 아프리카에서 이주한 호모 사피엔스의 후예입니다. 지역적인 관점에서 이들을 원주민의 뿌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 동북부 이란을 거쳐 일부 농·목축민이 유입되면서 서북부 밀 농경 지역에 일부 부계 형질 유입이 있었습니다. 이후 중앙아시아로부터도 일부 부계 형질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전적 다양성의 증가이지 인구 교체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유를 마실 수 있는 형질의 유입이지 우유를 마실 수 있는 사람에 의해 인구가 교체된 것이 아닙니다. 언어와 관련해서는 신석기시대 동안 인도 서북부 지역에 인도·유럽어가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인더스 문명 사람들도 이미 인도·유럽어를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교 석굴 승원 까를레, 서인도

옥서스 강 유역의 조상종교를 기반으로 인도 서북부로 진출한 이들이 발전시킨 베다 문화도 인도문화입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바깥에서 들어왔습니다.

역사 서술에서는 ‘그 이전에 외국에서 들어온’이라고 서술할 수 있지만, 그 지역에 정착된 이후에는 지역문화로 인정하는 관점을 인도 고대사 이해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고대 인도에는 이처럼 외부인의 직접적 진출, 교역, 아이디어의 전래 등으로 도입되어 지역문화화한 것들이 많습니다. 흔 구멍(port hole)이 설치된 고인돌, 종교 건축에 녹아든 지중해 지역 디자인 및 모티프, 육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상像의 제작, 와인문화 등 그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국의 것이 지역문화가 되었던 것처럼 이국인의 후손들이 인도 지역민의 일원이 되었던 고대 인도의 복합적 인구 형성도 이러한 시각에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

김용준(서울대학교 고병리학 및 인류학 연구소)

천년의 이름, 서라벌

국립경주박물관



성덕대왕신종 부분, 국립경주박물관

내 이름은 서라벌. 금성이라고도 불렸다. 기원전 57년에 태어나, 형산강 상류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천년 동안 왕국으로 살았다. 천년 동안 내가 꽃피웠던 찬란한 나의 보물들이 지금은 경주라고 불리는 이 도시의 곳곳에 잘 보존되어 있다.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고려 태조 왕건이 경순왕을 서라벌에 가지 못하도록 개경에 가두어 놓고, 경순왕을 위로하기 위해 경순왕의 '경'자를 따서 '경주'라는 이름을 선사했다고 한다. 고려



성종 때는 '동경'이었다가, 조선 태종 때 다시 '경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하여, 나는 엄연히 서라벌이라는 이름으로 천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사람들은 나를 '경주의 옛 이름'으로 기억할 뿐, 더 이상 부르지는 않는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국립경주박물관에 찬란하게 잠들어 있다. 천년의 세월을 살았던 추억들과 함께, 나의 세계이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 이곳에서 가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싶어서 깨어나곤 한다.

종종 제일 먼저 나를 깨우는 것은 박물관 한쪽 뜰에 있는 성덕대왕신종이다. 이 종의 울림은 은은한 여운현상 1분, 가슴을 울리는 저음역의 여운이 3분이나 지속된다고 한다. 때때로 긴 울림이 일어나 용이 되어 동해를 지키는 문무왕 수증릉에도 들렀다 오고, 경주 남산의 보물들을 두루두루 살피기도 하고, 불국사 석굴암에도 다녀오고, 동궁과 월지에도 머물렀다 오곤 한다. 심금을 울리는 그 공명을 듣고 있노라면, 천년을 거슬러 기원전에서 21세기까지를 이어주는 것만 같기도 하여, 내 고향 신라 때로 돌아가는 것 같은 향수를 불러일으키곤 한다. 이 종의 울림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까닭이다.

어느 때는 종이 제 소리를 내지 못하고 둔탁한 소리로 경종을 울리기도 한다. 이는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 종은 원래 봉덕사에 있다가 한때는 성문 밖에서 문의 열고 닫는 시간을 알리기도 했고, 여러 번 타종행사를 하기도 했다. 지금은 종의 보존 차원에서 타종을



금하고 당목도 떼어 놓았다. 지금 울리는 종소리는 예전의 소리를 녹음해 놓은 것이다. 장중하면서도 맑은 소리와 유난히 길면서도 신비스러운 소리로 유명한 이 종소리의 실제 소리를 나도 들어본 지가 까마득하여 안타깝다.

그리움이 사무칠 때면 나는 성덕대왕신종의 내력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게 된다. 성덕대왕신종은 이 나라에서 가장 빼어난 범종이라고 한다. 속설로는 아이를 넣어서 만든 에밀레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세간에서는 살생을 금하는 불교에서 생명을 희생시켜 중생을 구제하는 범종을 만들지 않았을 거라는 등, 종의 성분 분석 결과 사람 뼈를 이루는 성분인 인이 들어 있지 않아 아이를 넣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등 학설이 무성하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풍문을 배제하고 이곳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보물을 '성덕대왕신종'으로만 믿고 있다.

성덕대왕신종의 아름다운 몸체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종의 상하대와 유곽에는 넓은 띠를 둘러 그 안에 보상당초무늬를 아름답게 새겨 넣었다. 이 종의 조각 가운데 꽃이라 할 수 있는 네 구의 비천상을 보라. 연화좌 위에 무릎을 꿇고 있는 비천이 손잡이 달린 향로를 받쳐 들고 있는데, 성덕대왕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듯하다. 비천상 사이 표면에 새겨져 있는 이 종의 내력에 의하면, 종소리와 더불어 나라가 평화롭고 민중들이 복락을 누리기를 바라는 발원을 담아, 신라의 전성기를 이룬 성덕대왕의 공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종을 만들고자 했던 경덕왕과 실제 종을 만든 혜공왕의 효성과 덕을 찬양한다고 쓰여 있다.

비천의 주위에는 보상화무늬, 천의, 영락 등이 마치 구름이 살아서 뭉게뭉게 피어오르듯, 또한 향기가 천상으로 피어오르듯 생동감을 준다. 비천상의 모습이 종소리의 울림과 닮아 보이지 않는

가. 그 안에 평안을 바라는 염원과 발원이 담겨 있기 때문이리라.

보상당초무늬로 띠를 두른 종의 입구 둘레는 연꽃 모양으로 된 팔릉형으로 일반 동종에서는 볼 수 없는 구조다. 특이하고 아름다운 모양이 강인하면서도 유연한 종소리를 내게 하지 않았을까. 이 종의 화려한 문양과 조각수법에 나도 반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금굽다리접시, 국립경주박물관



새날개모양금관식, 국립경주박물관

다음으로 나를 깨우는 것은, 나의 전성기에 빛났던 보물인 황금이다. 내가 찬란했던 고대에 황금은 최고 권력의 상징이었다. 이웃 나라에서도 신라를 '눈부신 금의 나라'라고 불렀으며, '밥을 먹을 때도 금으로 만든 그릇을 사용한다.'고 부러워했을 정도로 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왕국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황남대총 북쪽 고분에서 나온 '금굽다리접시'만 보더라도 황금으로 빛은 그릇의 고품격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일곱 개의 나뭇잎 모양과 그것을 꿰어 달은 금실까지 황금으로 과시했으니.

새의 날갯짓이 위로 솟구친 모습으로 관모에 끼워 사용하는 금제 관식인 '새날개모양금관식'에 시선을 머물러 보라. 둥근 달개를 금실로 촘촘히 꿰어 달아서 한층 화려해 보인다. 왕실과 지배자를 상징하는 위세품다운 화려한 날갯짓의 위용이 느껴지지 않는가.

천마총 '금관모' 또한 용무늬, 그물무늬 등 각종 문양이 투각된 금판을 금실로 정교하게 엮어 매우 아름답다. 어쩌면 그렇게도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빚어냈을까.

그때도 찬란했고, 지금도 빛나고 있는 이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새날개모양금관식'의 달개들과 '금굽다리접시'의 나뭇잎 등 섬세한 금술들이 팔랑거릴 때가 있다. 그러면 나는 '아, 성덕대왕신종의 울림이 다녀가는구나.' 하고 생각한다. 여전히 반짝반짝 살아 있다는 신호이기에, 나도 덩달아 빛이 나는 순간들이다.

나는 이러한 황금의 나라에서 찬란한 빛으로 존재했으며, 여전히 그 빛을 간직하고 있다. 이곳은 천년의 역사가 살아 있고, 지금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기에.

강현자 회원



금관모, 국립경주박물관



태장재사

가장 깊은 터전

재사 齋舍

경북 안동에 있는 천등산은 봉긋한 산세가 참 평온하다. 새벽 물안개를 머금은 울창한 숲이 신령스러운 기운을 품어내면 고요하던 심장이 펄떡거린다. 세상 저편에 이끌리듯 걸음을 옮기면 봉정사가 환하게 피어 산자락의 그늘을 걷어낸다. 그 평화로움이 참 좋다. 봉정사에서 개목사까지 U자 형태로 돌아보다 특이한 재실 건축을 만난다. 어릴 적 일 년에 한 번씩 시제時祭라 하여 아버지가 묘제를 지내기 위해 본가로 내려가시던 기억이 떠오른다. 익숙한 재실과 달리 이곳에선 재사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다. 봉정사로 들어가는 길목, 멋진 소나무들이 울창한 길로 접어들니 커다란 규모의 한옥이 우뚝 서 있다. 안동 김씨, 태사 김선평의 묘를 지키고 관리하는 태장재사이다. 전면 7칸 측면 2칸의 거대한 누각, 이상루履霜樓는 외부에서 범접하기 어렵게 폐쇄적이었다. 관리사를 통해 들어가 본 안마당에 열을 지어 자리한 작은방들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묘제를 위해 내려온 참제인들을 위한 방이 필요한 건 알았지만 여기는 숙박시설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대규모 단체가 방을 예약했다고 한다. 일 년에 며칠만 사용하는 공간이니 평소에는 그리 활용하나 보다.

후삼국 때 안동의 토호 권행, 김선평, 장정필은 왕건을 도와 병산전투에서 견훤 군을 격파하면서 태사의 지위를 부여받았고, 유력한 토착 성씨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안동은 이후 중앙권력과 밀착되어 지방행정의 중심지로, 지역 씨족들이 중심 성리학자들을 배출하면서 조선까지 이어져 갔다. 임진왜란 이후 가치의 기준이 무너지고 가문의 혈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었다. 유력 가문은 족보를 편찬하고, 시조와 중시조에 지고至高의 가치를 부여하는 제례를 가문 최고의 행사로 만들었다. 사람의 고장에 경쟁적으로 크고 개성 있는 재실 건축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문화재청에 등록된 것을 찾아보니 '재사'라는 이름은 안동과 그 인근 지역에서 일반화하여 사용하였다. 재실에 비해 규모가 크고 고급스러움을 구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우리 집안의 재실은 '一'자형으로 들었는데, 이번 답사에서 만난 재사들은 '口'자형으로 누각을 갖추고 있었다. 묘제를 준비하는 재사 공간의 중심은 대청과 누마루이다. 제사의 절차와 재정을 담당하는 유사의 주관 아래 대청에서 상을 차리고 원로들의 회의도 진행한다. 누마루는 음복례를 하고 종손을 중심으로 하는 교류 공간이다. 비 올 때는 묘제를 이곳에서 행하니 공식적인 장소가 되기도 한다.

금계재사는 풍산 류씨 서애 류성룡의 부친 류중영의 묘제를 위한 재실로 석축에서 품격이 느껴진다. 조상에 대한 영원한 그리움을 담은 웅장한 영모루永慕樓 옆으로는 소루가 연이어 있어 재사 건축에 중요한 의미를 담는다. 누문을 통과하면서 만나는 누하주의 팔각과 원기둥의 자태가 일품이다. 송실재는 상량문에 의하면 사찰인 능효사 건물을 사들인 것이고 두 차례의 수리를 거쳐 사용하고 있다. 정



태장재사 내부



송실재



서지재사

면 6칸 중 원래 대웅전이던 4칸은 원기둥이고 나중에 달아낸 2칸은 사각기둥인 것도 재미있다. 기둥 위, 단정한 주심포에는 이익공이 날아오른다. 두 개의 문이 달린 쌍창의 중간에 문설주를 두는 영쌍창과 기둥 사이에서 기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인방이 생략된 벽체가 특이하다. 그리고 인상적이던 봉정사 대웅전처럼 여기도 쪽마루가 깔려 있다. 맨 앞 기둥의 가운데 부분에 이음매를 댄 것을 보니 석축의 이끼와 더불어 세월의 무게가 느껴진다. 이웃해 있는 권태사의 능동재사는 수리 중이라 옆으로 뒤로 돌려 기웃거리다 건물 뒤쪽의 석축과 물길의 조화로움에 감탄한다. 이 재사는 대규모이고 서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니 더욱 궁금해진다.

학봉종택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학봉 김성일의 묘제를 위한 서지재사가 있다. 앞에 너른 밭이 펼쳐져 있는 평지에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서 경사지에 위치한 다른 재사와 차별화된다. 정확한 건축연대를 알 수 없지만 학봉 비석에 적힌 연도가 인조 12년(1634)인 것으로 보아 이보다 늦은 1700년대 건축으로 추정한다. 전면에 누마루가 있는 □자형 재사건축인데 살림집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작은 규모이다. 누 아래 대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대청이 있는데 석축 기단을 높여 누마루보다 더 높게 설치하였다. 우러르는 느낌이 긴장감을 일으킨다. 대청 양쪽 옆은 모두 방으로 채워져 있고 대청에서 누마루까지 난간을 세운 쪽마루가 연결되어 있다. 외부와 닿는 면은 어느 곳도 열린 곳이 없어 안마당 위의 하늘에서만 빛이 들어온다. 이끼가 소복이 깔린 마당이 공간을 음산하게 만든다. 순간 서 있기도 힘들어 밖으로 나와 측면을 돌아본다. 석축 기단 위에 구불구불한 나무로 분할된 면과 부드러운 톤의 흙벽이 따뜻한 정감을 나뉜다. 정면의 폐쇄성과 다른 차별성이다.

예천을 돌아 서울로 오는 길, 희이재사 1.7km라는 방향 표시를 만난다. 뜻하지 않게 황재한 기분이다.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며 마음이 두근거린다. 길이 넓어지고 환하게 다가서는 멋진 한옥, 함양 박씨 입향조 박종린의 묘소를 지키는 희이재사이다.

경사진 대지의 전면에 감로루感露樓를 세우고 뒤편은 한 단 높여 일자 평면의 희이당을 올렸다. 곳간채와 문간채를 둔 트인 □자형 배치 공간에 돌담을 쌓았다. 감로루 양 끝 퇴칸에는 온돌방을 설치하였는데, 누각에 온돌을 설치하고 누마루 기둥 밖으로 돌아가며 쪽마루를 돌출시킨 구조는 볼수록 독특하다. 시제 때 제수를 점검하는 감품監品, 대를 이을 자손 없이 사망한 사람의 제사를 대신하는 의민단義愍壇 제사, 묘를 살피는 요성삼주繞省三周 등의 무형 문화가 전승되고 있어 조상 의례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재사와의 짧은 만남은 긴 여운을 남긴다. 내게 특별한 천등산 인연 자락에 이채로운 재사 건축의 형상을 새기며, 눈앞을 스치는 너른 평야에 하루를 되묻는다. 한 사람이 태를 묻고 성장한 땅에 다시 뼈를 묻는다. 그 심연의 문 앞을 서성이고 보니, 세상을 향한 두드림은 여기가 맨 앞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

정은정 희원



희이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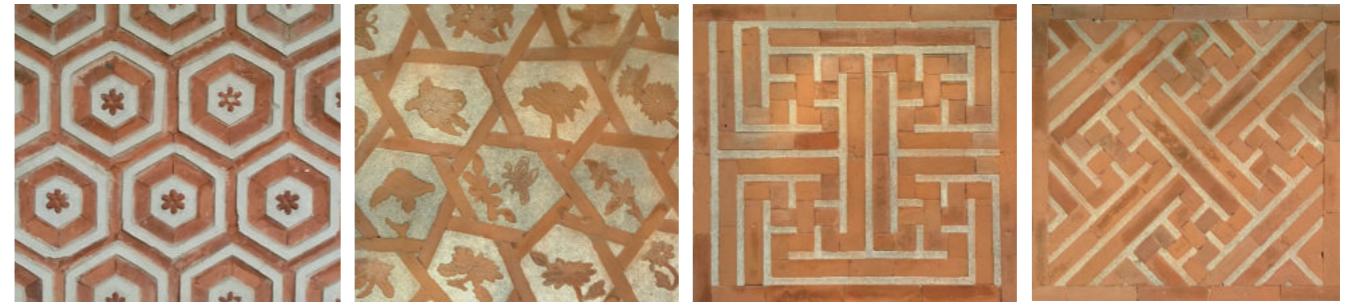


흙으로 그린 그림

경복궁 근정전, 사정전, 교태전의 후원을 지나면 자미당 터 건너편에 눈길을 끄는 담장을 만나게 된다. 발길을 머물게 한 담장이 있는 전각은 누가 거처했던 전각일까 하는 의문이 스친다.

효명세자의 비이며 현종의 어머니인 신정왕후 조씨는 고종의 즉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인이다. 자경전은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신정왕후를 위해 궁궐 안에서 가장 세심하게 만들어 은혜에 보답했던 전각이라고 한다. 두 번의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888년에 재건하여 경복궁 침전 전각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물이다.

자경전의 꽃담과 십장생 굴뚝은 교태전 후원에 있는 아미산의 굴뚝과 더불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담장 안팎에는 주황색의 벽돌로 짜 맞춘 여러 가지 장식 문양이 가득하다. 담장 윗부분이 검은 기와로 덮여 있어 그 아래에 있는 문양들이 더욱 선명하고 화려한 느낌을 준다. 이 꽃담의 문양은 크게 문자와 식물무늬로 나눌 수 있으며, 여백에 만자군字무늬나 격자무늬, 귀갑무늬, 기하학적 무늬를 넣기도 하였다. 이런 무늬는 장수, 기복, 벽사, 길상 등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귀갑무늬

석쇠무늬

만자무늬

만자무늬

자경전 꽃담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는 것은 식물 문양들이다. 마치 액자나 족자처럼 화재 畫材에 따라 각각 다른 그림들을 담장에 전시하고 있는 것 같다. 흙으로 구운 한 폭 한 폭의 그림은 밑그림에 따라 조각한 뒤 여러 조각으로 잘라 구워서 색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색의 변화가 생겨 더욱 운치가 있고, 직접 붓으로 그린 그림처럼 생동감이 넘친다.

담장에는 모두 여덟 폭의 그림이 있다. 보름달을 배경으로 어린 새 한 마리가 매화 나뭇가지에 앉아 달빛에 즐고 있다. 시흥詩興을 일깨워 주는 매화, 삼천갑자 동방삭이 훔쳐 먹고 오래 살았다는 복숭아, 부귀영화를 뜻하는 모란을 화면 가득히 그렸다. 또한 다산을 상징하는 석류, 높은 절개의 꽃 국화, 군자의 품격을 뜻하는 대나무 등이 있다. 경

직되기 쉬운 부조에 회화성을 살려 부드럽게 표현하였다. 꽃 그림과 함께 ‘樂’, ‘疆’, ‘萬’, ‘年’, ‘張’, ‘春’ 등 마치 임금님의 옥새를 보는 듯 조형미가 뛰어난 전서체篆書體 글자들을 볼 수 있다. 단순한 벽돌 선분의 조합만으로 어떻게 이런 글자를 만들 수 있을까? 쉽게 읽기조차 어려운 글자들이다.

담장의 그림과 그림 사이 행간의 벽면에는 만덕萬德을 나타내는 만자무늬, 장수의 상징인 거북등 모양의 귀갑무늬, 악귀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석쇠무늬, 체 무늬로 뺨뺨하게 여백을 메웠다. 이처럼 강력한 방어의 의미를 지닌 문양 중앙에 꽃무늬를 넣은 것은 일단 물리친 뒤에 꽃처럼 행운이 가득하라는 세심한 배려까지 곁들여진 것이다.



모란, 年

복숭아, 張

매화, 萬



십장생 굴뚝

자경전 후원에는 담장의 일부분을 앞으로 돌출시켜 십장생 그림을 새기고 그 위에 연기가 빠지는 연가煙家 10개를 얹은 굴뚝이 있다. 이 연가로 인해 담장이 아니라 굴뚝임을 알 수 있다. 굴뚝의 중앙 벽구간 바탕에는 장수를 뜻하는 십장생 문양이 베풀어져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다산을 뜻하는 연꽃과 포도송이를 조형전造形轉으로 만들어 가득 배치했다. 굴뚝 상단 가운데에는 해태의 얼굴을 새긴 해태전獬豸磚을 넣고, 그 양쪽에 영지버섯을 입에 문 학문전鶴文磚을 배치하였다. 하부에는 불가사리로 알려진 서수를 벽돌로 만들어 두 곳에 두었다. 굴뚝 위에는 불을 제압하는 해태를 새기고 굴뚝 아래에는 나쁜 잡귀들이 들어올까

봐 사방을 노려보고 있는 불가사리 문양들을 새겨 자경전을 지키고 있다.

이렇듯 큰 벽체에 하나의 그림처럼 십장생 무늬가 생동감 있게 펼쳐진 굴뚝은 단순한 난방장치의 일부가 아니라 뛰어난 조각 작품이고, 조형미가 세련되어 주인의 품격을 드러내주는 화려한 장식이다. 궁궐 화문장 중에서도 으뜸이라 바라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처럼 멋들어진 굴뚝과 꽃담장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들을 보며 자경전의 주인이었던 신정왕후와 경복궁 재건을 한 대원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

장옥규 회원

43기 박물관 특설강좌

40여 년 전통의 특설강좌는 우리 역사와 예술에 대해 전문강사진에게 배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강좌입니다.



회원모집 안내

모집인원	화요일 : 200명 목요일 : 200명
강좌내용	역사학, 인류학, 고고학, 미술사, 불교미술, 사상사, 박물관학, 전시실 교육 및 고적답사
수강기간 및 시간	2019년 3월~12월 (매주 1회, 13:00 ~ 17:00)
교육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소강당
참고사항	박물관 특설강좌 수료 후에도 계속적으로 박물관 연구강좌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2019년 1월 10일(목)부터 선착순 마감
참가비	570,000원(1년 과정)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 www.fnmk.org
	현장접수(수강신청서) :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101호



특설강좌 강의장면



전시실 교육



고적답사

박물관 연구강좌

박물관 연구강좌는 박물관 특설강좌를 수료한 후 참여할 수 있는 강좌로, 1년 동안 한가지 주제로 진행되는 심화과정 강좌입니다.

회원모집 안내

강좌명	수강시간	주제	모집인원	교육장소
한국사A	첫째 셋째주 화요일 10시~12시	한국의 역사 - 고려시대	100명	1강의실
한국사B	첫째 셋째주 화요일 14시~16시	고려의 찬란한 예술과 문화	100명	1강의실
고고인류	둘째 넷째주 목요일 10시~12시	고대의 황금 문명	100명	1강의실
미술사A	첫째 셋째주 목요일 10시~12시	서양 예술의 역사	200명	소강당
미술사B	둘째 넷째주 목요일 14시~16시	동양의 미술 - 중국에서 인도·서역까지	100명	1강의실
동양문화	둘째 넷째주 목요일 10시~12시	중국의 역사와 문화	200명	소강당
사상사	첫째 셋째주 화요일 10시~12시	문학으로 읽는 동·서의 사상	200명	소강당
세계문화A	첫째 셋째주 수요일 10시~12시	서양 미술 화풍의 화가들	200명	소강당
세계문화B	둘째 넷째주 화요일 10시~12시	중동 - 오리엔트 : 잃어버린 문명과 새로 보는 세계사	200명	소강당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 2019년 1월 7일(월) - 사상사, 한국사A, 세계문화A
- 2019년 1월 8일(화) - 한국사B, 세계문화B, 미술사B
- 2019년 1월 9일(수) - 동양문화, 고고인류, 미술사A

현장 접수

2019년 1월 15일(화)

2강좌 접수

2019년 1월 16일(수)



태실 석함, 야외 석조물 정원

未 忘

잊지 않아요,
어둠을 접으며 동이 터오듯
온 세상을 열어버린
고고지성呱呱之聲을.

탄생의 기억과
영원への 회구를
꼬옥 그리안았답니다.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俞相玉, 柳昌宗, 金正泰 회장을 거쳐 2017년 11월 申聖秀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申聖秀
 副 會 長 | 尹在倫 朴殷寬
 理 事 | 郭東錫 金錫洙 金信韓 南秀淨 朴禎原
 禹燦奎 尹碩敏 李玉卿 許榕秀 洪錫肇
 洪政旭 裴基同
 監 事 | 金教台 李教祥
 事 務 局 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 원, 청룡 오십억 원, 백호 삼십억 원, 주작 십억 원, 현무 오억 원, 천마 일억 원, 금관 오천만 원, 은관 삼천만 원, 청자 일천만 원, 백자 오백만 원, 수정 이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백호회원

삼성전자

주작회원

尹光子 회원

현무회원

金正泰 하나금융그룹

천마회원

南秀淨 (주)선엣푸드 사장
 朴殷寬 (주)시몬느 회장
 孫昌根 소장가
 申聖秀 고려산업(주) 회장
 申憲澈 SK에너지
 尹碩敏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尹章燮 전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鄭溶鎭 신세계그룹 부회장
 千信一 세종문화재단 이사장
 許榕秀 GS EPS 대표이사
 洪錫肇 (주)BGF리테일 회장
 洪政旭 헤럴드·올가니카 회장

금관회원

姜德壽 (주)STX
 庚 園 광제사 주지
 權俊一, 具在善 Actium Group 부회장

회원

曉 暎 金教台
 金南延 金錫洙
 金承謙 金信韓
 金芝延 全裁範
 都炯泰 朴炳燁
 朴容允 朴禎原
 裴東眩 宋英淑
 辛炳讚 俞相玉
 尹在倫 李圭植
 李明姬 李玉卿
 李周成 李琿旻
 鄭明勳 鄭在鳳
 趙顯相
 崔杜準
 최철원

회원

許允秀 (주)ALTO·(주)ALTEK 사장
 許允烘 GS건설 부사장

은관회원

姜院基 오리온 대표
 金寧明 (주)예을 이사장
 金英姬 회원
 金載勳 영풍제약 부사장
 金榮秀 (주)종합전기 대표
 金英惠 (주)풍산주택 회장
 金裕錫 (주)한담 사장
 金侖壽 아성다이소 부사장
 金恩惠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회장
 金益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金仁順 (주)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金載烈 광성기업(주) 대표
 金正宙 (주)계임빌·(주)컴투스 대표이사
 金宗學 성문출판사 대표
 金兌炫 대신증권(주) 사장
 金澤辰 학교재 대표
 金賢鎰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南兌勳 동화약품 상무
 柳重熙 서울가든호텔 사장
 閔俊棋 가나아트갤러리 대표
 朴環鎭 한미메디케어 대표이사
 朴仙卿 (주)교원 상무
 朴善正 선인자동차·고진모터스 대표이사
 朴宣注

曹榮峻 우양산업개발(주) 대표이사
 崔雄善 (주)인팩 대표이사
 崔正勳 대보건설(주) 부사장
 韓惠舟 진양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

청자회원

姜承模 KP그룹 부회장
 高基瑛 (주)금비 부회장
 具東輝 (주)LS 상무
 具本權 LS-Nikko동제련(주) 부장
 具本商 LIG넥스원(주) 부회장
 具本赫 LS-Nikko동제련(주) 부사장
 具瑗姬 한성플랜지 이사
 鞠賢永 세기상사(주) 기획팀장
 權宅煥 신대양제지(주) 대표이사
 金建昊 삼양사 팀장
 金京姬 (주)피어나조경 대표이사
 金寧慈 (주)예을 명예이사장
 金大煥 (주)슈페리어·슈페리어홀딩스(주) 사장
 金東官 한화 큐셀 전무
 金東準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金斗植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金相潤 유리자산운용 경영기획실장
 金性南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金性完 스무디킹 Global CEO
 金世淵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金永珉 김&장 법률사무소
 金永珉 2014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
 金榮秀 제일화재 이사장
 金英惠 (주)행남 대표이사
 金裕錫 지리산 문화관 관장
 金侖壽 지알엠주식회사 상무
 金恩惠 한세실업(주) 대표
 金益煥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金仁順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金載烈 (주)NXC 대표이사
 金正宙 서양화가
 金宗學 성신양회(주) 사장
 金兌炫 (주)엔씨소프트 대표
 金澤辰 히든베이호텔 사장
 金賢鎰 국제약품 대표이사 사장
 南兌勳 (주)퓨처플레이 대표이사
 柳重熙 라인터내셔널립플사무소파트너변호사
 柳重熙 진주햄 대표이사 부사장
 李雲卿 용인대학교 부총장
 李承勇 대선제분(주) 부사장
 李英純 영은미술관 관장
 李鈴子
 李容濤
 李宇成
 李宇鎰
 李雲卿
 李胤基
 李仁洙
 李宰旭
 李柱翰

朴世昌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
 朴漢正 V&S자산운용 부장
 朴載相
 朴載蓮
 朴廷彬
 朴正遠
 朴俊泳
 朴海春
 方正梧
 裴允植
 徐東姪
 薛允碩
 孫元洛
 申硯均
 辛永茂
 愼昌宰
 沈宗玄
 楊仁集
 梁汰會
 吳勝敏
 吳治勳
 柳東鉉
 俞承熹
 柳英芝
 尹 寬
 尹普鉉
 尹勝鉉
 尹楨善
 李甲宰
 李圭鎬
 李起雄
 李萬圭
 李美淑
 李常宰
 李善眞
 李秀卿
 李承勇
 李英純
 李鈴子
 李容濤
 李宇成
 李宇鎰
 李雲卿
 李胤基
 李仁洙
 李宰旭
 李柱翰

TV조선 상무

(주)한국체인모터 대표이사
 회원
 대한광통신 사장
 (주)경동홀딩스 상무
 아름답기 이사장
 법무법인 세종 대표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주)진로 대표이사 사장
 (주)비상교육 대표이사
 동일산업(주) 대표이사 사장
 대한제강(주) 대표이사 사장
 인성산업(주) 전무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관장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BlueRun Ventures 대표
 호림박물관 이사
 (주)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주)성보화학 대표이사
 삼일회계법인 전무
 (주)코오롱 상무
 열화당 대표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삼표산업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목금토갤러리 관장
 삼보모터스 프라코 상무
 (주)에이티넵파트너스 대표이사
 한국미술협회 회원
 (주)경농 부사장
 (주)이테크건설 부사장
 OCI 사장
 남양유업 전문위원
 그랜드힐튼호텔 사장
 수원대학교 이사장
 전남일보 사장/발행인
 (주)삼익유니버스 이사

李濬宇 홍아해운 전무
 李芝衡 장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사
 李哲雨 롯데쇼핑 총괄사장
 李學俊 크리스티코리아 대표
 李海珍 NAVER 이사회 의장
 張同鎭 (주)파워맥스 사장
 張升準 매일경제 사장
 洋賢財團

田永采 (주)한길봉사회 이사장
 田潤洙 중국미술연구소 대표
 丁恩美 블룸앤코 대표
 鄭義宣 현대자동차 부회장
 鄭在昊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鄭志伊 현대유엔아이 전무
 趙炳燾 성암고서박물관장
 曹榮美 경동소재 대표이사

曹在顯 (주)가온소사이터 대표
 趙希卿 하나유비세스 대표
 陣在旭 천일식품(주) 대표
 千碩圭 (주)카카오 CFO
 千碩圭 회원
 崔世勳 SK(주) 부회장
 崔仁善 회원·자원봉사
 崔再源
 崔惠玉 한국도로공사

韓榮宰 노루홀딩스 회장
 咸泳俊 (주)오투기 회장
 許正錫 일진홀딩스(주) 대표이사
 許辰秀 SPC(주) 부사장

玄明官 (주)화승R&A 부회장
 玄智皓 호성호업 회장
 胡鍾一 (주)더벤처스 대표이사
 胡昌成 남양유업(주) 부장
 洪範碩 고려제강 상무
 洪碩杓 고려상사(주) 부회장
 洪誠杓 회원
 洪元福, 金根鎬 (주)BGF리테일 부사장
 洪正國 (주)BGF리테일 부사장
 洪正道 중앙미디어네트워크 대표이사 사장
 洪進基 마리오아울렛 이사
 洪振碩 남양유업(주) 상무
 黃仁奎 충남도시가스 대표이사

Joseph Bae KKR Asia Limited 대표
 Mark Tetto TCK Investments 상무

* 2018. 11. 28 기준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